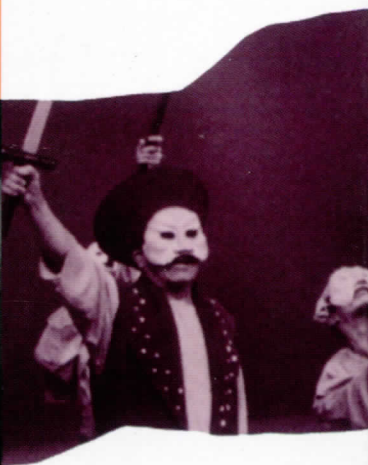


연극비평의 방법과 실제

허은 / 이주상 공저



경성대학교 출판부

연구비평의 방법과 실제

1판1쇄 인쇄 1999년 8월 25일
1판1쇄 발행 1999년 8월 30일

저 자 · 허 은 / 이주상
발행인 · 김대성

발행처 · 경성대학교 출판부

등록 · 1985. 1. 28. 카7-44호

주소 ·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전화 (051) 620-4355, 4356 / 팩스 (051) 623-7803

ISBN 89-7314-0949 93680

값 8,000원

연구에 관한 일반 이론서적이나 회고에 관련된 도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어도 실제 공연의 예를 들어가면서 연구비평의 방법과 그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비평을 총괄하는 우리말로 된 책은 아직 찾아보기가 힘들다. 서양회극 비평서와 일반 문학 비평론을 다루는 책은 많은데 유독 연구비평서, 아니 이 소책자에 인용할만한 우리 글로 된 연구비평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설명 있다할지라도 어떤 연구이 언제, 어디서 공연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에 한정되어 있을 뿐, “어떻게”, “왜”에 대한 비평의 구체적 지침이나 그 지침에 기초한 추후 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예는 아직껏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리하여, 허는 수 없이 연구비평에 관한 사구의 문헌과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 인용하여, 두 필자의 주관개입을 최대한으로 줄이기로 했다. 듀코어(Bernard F. Dukore)의 『연극의 이론과 비평』(Dramatic Theory and Criticism, 1974), 프란시스 퍼거슨(Francis Fergusson)의 『연극의 이념』(The Idea of A Theater, 1972), 프리어(Northrop Frye)의 명저 『비평의 해부』(Anatomy of Criticism, 1957), 클린스 브룩스(Cleanth Brooks)의 『연극비평사』(History of Theatrical Criticism, 1968), 브로켓(Oscar G. Brockert)의 『연극론』(The Theater,

1978) 등에서 그 내용적 요소들을 발췌하여 각 항목의 미진한 부분에 보완하였다.

이 중 듀코어의 논의의 핵심은 박학주의적 비평을 경계하면서 고전주의에서 현대의 부조리극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연극 이론가나 비평가들의 논평 혹은 비평의 적, 부적을 가려내어 이를 실제의 공연에 반영토록 유도하였다는 데에 있다. 피거슨은 혼합예술 혹은 총체예술로서의 연극이 살아나려면 오페라의 발전과 신뢰와 제의연극의 부활을 들고 나왔다. 잘 알려진 대로, 프라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최대의 비평가 중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로서 구조주의 비평을 공박하고 신화비평 혹은 원초형 비평에 그 비중을 싣고 있는데, 이는 피거슨과 유사한 이론으로 우리의 문학계는 물론 연극계에 지금까지도 하나의 표본이 되어주고 있다. 클린스 브룩스는 특히 이론보다는 단연 실천을 중시한다. 어떤 작품이 무대에 옮겨지면 그 분야에 정통한 비평가들을 참관케하여 연출의 잠재력과 배우들의 연기력을 테스트하도록 유도하여 최종 평가작업에 그것을 반영한다. 이것이 그의 또 다른 명저 『연극의 이해』(Understanding Drama)를 낳게 하였다. 끝으로 브로켓은 비평의 기본문제를 “이해”, “효율성의 평가”, “궁극적 가치판단”으로 세분화하여 비평가의 비평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도 결국 비평의 객관성이나 주관성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된다. 그러면서도 전자의 “이해”를 브로켓은 강조했다.

어떤 연구공연에 대해서 합리적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평가를 내리는 작업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는 잘 알고 있다. 연극비평은 문학비평처럼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공연을 보고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인들의 지문을 구하여 글을 쓰기 때문에, 비평가는 비평가대로 독자는 독자대로 그만큼 큰 부담을 안게되리라 예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연극비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 자체가 모순되고 어찌하면 우스꽝스러운 일일런지도 모른다. 연극을 위하여 아니 연극이 좋아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관이 개입된 비평은 오히려 죄악이 아니고 무엇이라! 이것을 생각하면 이 줄고를 완성했다하여 오래간만에 회복된 두 사람의 마음의 평화가 당장이라도 깨어질 것만 같다. 그것은 아직도 무슨 사소한 계기만 있어도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참으로 위태로운 안전이다.

비평방법을 제외한 비평용어, 해석 등은 현대의 연극적 상황에서 두 필자의 판단과 결과에 따라지만, 주관이 상당히 개입되었을 것이므로 독자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비판을 가할 수 있다. 근거 없는 비평보다는 합리성에 의거한 비평이야말로 연극의 본령이 아니겠는가.

끝으로 소책자 출판을 위하여 힘써 주신 경성대학교 출판국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1999. 8.

허 은, 이주상

■ 책을 내면서 / i

I. 연극비평의 이해와 한계영역

- 1. 저널리즘 비평의 한계 / 8
- 2. 이론비평(Textual Criticism)과 실제비평(Practical Criticism) / 12

II. 연극비평(Theatrical Criticism)의 개요와 그 범위

- 1. 회극비평(戲曲批評 : Textual Criticism) / 15
 - 1) 플롯(plot)의 이해 / 17
 - 2) 대사(臺詞 : Dialogue) / 19
 - 3) 무대지시(舞臺指示 : Stage Direction)와 행동지시(行動指示 : Action Direction) / 21
- 2. 연극비평(演劇批評 : Theatrical Criticism) / 24
 - 1) 연출비평(演出批評 : Criticism for Representation) / 27
 - 2) 무대미술 비평(舞臺美術 : Criticism for Stage Arts) / 32

III. 연극비평의 종류와 방법

- 1. 전통주의 비평(傳統主義 批評 : Traditional Criticism) / 40
 - 1) 역사주의 비평(歷史主義 批評 : Historical Criticism) / 42
 - 2) 전기비평(傳記批評 : Biographical Criticism) / 68

2. 형식주의 비평(形式主義批評 : Formalistic Criticism) / 74
 - 1) 형식주의(形式主義 : Formalism)의 개요 / 74
 - 2) 형식주의 비평의 방법 / 76
 3. 심리주의 비평(心理主義 批評 : Psychological Criticism) / 108
 - 1) 심리주의 비평의 적용 / 111
 4. 신화, 원형 비평(Mythological, Archetypal Criticism) / 126
 - 1) 신화(神話 : Myth)란 무엇인가? / 127
 - 2) 신화비평(Mythological criticism)의 원리와 한계 / 130
 - 3) 셰익스피어 희극의 신화적 요소 / 137
 - 4) 신화와 제의(祭儀)로서의 오페라 :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and Isolde) / 141
 - 5) 원형비평(原型批評 : Archetypal Criticism) / 146
 - 6) 신화(神話)에서 서사(敘事)로 : 「오이디푸스 이야기」의 서사극화 / 155
 5. 구조주의 비평(Structural Criticism) / 167
 - 1) 구조주의(構造主義 : Structuralism)의 개설 / 167
 - 2)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의 혼용 / 171
- <부록1> 연구비평 용어해설(가, 나, 다 순) / 183
- <부록2(1)> 『함부르그 드라마마투르기』(Hamburg Dramaturgy, 1767~1769) / 224
- <부록2(2)> 연구비평의 원리와 방법 / 237

I. 연구비평의 이해와 한계영역

연구이란 무엇인가, 실제의 공연을 위해 쓰여진 한 편의 희곡작품의 구성원리는 어떠한가, 연출가는 무슨 일을 하는가, 공연할 때에 제반 연구적 요소들(연기, 무대미술, 분장, 소품, 조명 등)이 서로 유기적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무대상에 재현되었는가 등을 논의하는 일을 연구비평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연구공연에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넓은 의미의 연구비평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작품과 공연의 현실을 합리화하고 관념화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비평은 유동적인 연구적 형상(形象)을 어떤 범주 속에 구상화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정착시키는 행위이다.

하나의 비평이론으로 그 원리를 연구 전체에 적용할 수 있고, 비평절차상에서 일어나는 타당한 형태를 달달이 설명해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미했던 『시학』으로 생각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자가 어떤 유기체에 접근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연극에 접근하면서, 그리하여 연극의 속(屬)과 종(種)을 고르고 연구경험의 광범위한 범칙을 체계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의 시의 이론, 희극의 구성이론, 비극의 정의 등은 수세